# 당구 치고 자동차 경주게임…선수들의 휴식처



#### 광주세계수영대회 D-9

② 선수촌 아파트

"숙소와 식당, 의료센터, 카페 등 편의시설까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됐습니다."

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(7월 12~28일)를 10일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2일 오전 선수촌을 언론 에 공개했다.

선수촌은 옛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마련됐 다. 부지면적 9만4000㎡(3만평가량)에 25 개동 1660세대 규모다. 오는 5일 입촌식을 거쳐 선수와 임원 등 6000명의 선수단이 이용한다. 광주공항에 서 차로 10분, 송정역에서 12분, 주경기장인 남부 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 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.

선수촌은 크게 국제구역, 선수구역, 미디어구역 으로 나눠진다. 국제구역에는 각국 선수등록을 위 한 AD카드인증센터, 종합안내센터, 선수촌 상황 실, 프레스센터가 들어서 매인센터 역할을 한다.

선수구역은 선수숙소와 편의시설로 나뉜다. 숙소 는 105㎡(32평) 짜리 아파트 1실을 선수 6명이 함 께 쓴다.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보니 침실 3개와 거 실, 욕실 등을 갖췄고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쾌적해 보였다. 숙소마다 에어컨도 설치됐다. 대회기간 선 수들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객실 청소 서비스를 한다.

선수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한 두개가 아니다. 지 하 1층에는 광주은행, 우체국, 플레이룸, 가상·증강 현실 체험장 등이 들어섰다. 은행에선 환전 송금 인 출 서비스가 가능하고 우체국에선 국제우편 발송이 25개동 1660세대 6000여명 이용 의료센터·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 의식주 물론 금융·쇼핑·오락도 대회기간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

가능하다. 플레이룸은 선수들이 게임 등을 하며 놀 수 있는 150㎡쯤 돼보이는 공간이다. 당구대 6대, 탁구대 6대, 미니 농구골대, 전자다트, 자동차경주 게임기 등을 갖췄다.

지하 1층 편의시설 옆 공간에는 선수촌 의료센터 가 들어섰다. 응급의학과·내과·스포츠의학과·한방 실 등을 갖췄다. 의료 공간별 크기는 약 15㎡ 정로 로 선수단 전체 규모를 고려해보면 다소 협소한 감 이 없지 않았다.

선수촌 입구 103동 주변에는 면세점·카페·편의점 •기념품 가게를 갖춘 편의시설이 자리잡았다. 선수 들이 선수촌에서 의식주는 물론 금융, 쇼핑, 오락 등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.

조직위 관계자는 "선수촌은 명상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피로회복 공간, 스포츠와 인터넷 게임 체험 장, 문화공연장 등을 개설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 션으로 최대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"고 설명했다.

대회기간엔 오후 5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국기 광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. 주요 취약지점에 보안 CCTV설치하고 내·외곽을 24시 간 경계 순찰해 선수들의 안전도 책임진다.

선수촌 식당은 1000명의 선수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. 아침·점심·저녁마다 100가 지 음식이 뷔페식으로 준비된다. 주먹밥 등 광주 별 미가 제공되고 할랄음식도 마련된다. 아침 일찍부



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열흘 앞둔 2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식당이 언론에 공개됐다.

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터 밤늦게까지 경기하는 선수들을 배려해 새벽 5시 부터 새벽 1시까지 식당이 운영된다.

음식과 숙소, 편의시설과 의료센터 등을 갖춘 선 수촌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처럼 보 였으나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미흡한 점 도 눈에 띄었다. 식당에서 쏟아져나올 일회용품 쓰 레기가 대표적이다. 음식을 담는 접시, 수저, 포크,

젓가락 등이 모두 플라스틱 1회용품이어서 위생문 제는 없어보이지만, 이번 대회를 친환경대회로 치 르겠다는 대회조직위의 다짐은 대회 시작도 전에 불가능해 보였다. 식당이 선수촌 아파트에서 나와 1차선 도로를 하나 건너에 마련됐다는 점도 단점으 로 꼽힌다. 조직위는 식당과 의료센터 등 곳곳에 통 역요원을 배치해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언어장벽으

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.

최종삼 선수촌장은 "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촌을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"며 "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면서 화합과 우정 을 나누는 평화의 공간이 될 것"라고 말했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## 전남 22개 시·군 내년부터 '농·어민 수당' 도입

#### 전남 시장・군수협의회 합의

전남지역 22개 시·군이 내년부터 '전남 형 농·어민 수당'을 도입키로 합의했다. 애 초 자치단체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했던 지 급 규모도 전남도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. 전남도는 조만간 22개 시장・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농·어민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.

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시장•군수협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구례자연드림파크 에서 제 5차 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'전남 형 농·어민 수당'을 도입하는 데 전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. 이날 회의에는 시장·군 수 11명과 권한 대행 1명, 부단체장 10명 (목포, 광양, 고흥, 해남, 영암, 무안, 영 광, 장성, 진도, 신안) 등 22개 시·군이 모 두 참석했다.

이들은 이날 특별 안건으로 상정된 '농· 어민 공익수당' 도입과 관련, 내년부터 전 남지역 농·어업 경영체 경영주(24만3122 명)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 모두 합 의했다. 이들은 또 1년에 두 차례, 30만원 씩 6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의견을 모았 다. 자치단체별로 달리 책정할 것으로 예 상했던 지급 규모도 전남도 입장대로 연 60만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. 농•어업 경 영체 등록을 한 농·어민들로 할 것인지, 개 별 농•어민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일(2020년 1월 1일) 1년 전 전 남에 주소지를 두고 농•어업 경영체 등록 을 한 농·어민으로 한정했다. 다만, 전남도 와 시·군의 분담 규모의 경우 추후 조정키

전남도는 애초 전체 농민 공익수당의 40%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초지 자체가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지

만 시장·군수들은 재정 형편을 감안, 50% 지원을 요청해 별도로 협의회를 열고 조정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. 지급 방식도 전남도는지역상품권인 '새천년 상품권' 으 로 50%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시장·군수들 은 각 시·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상품권 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 추후 협의키

전남도와 22개 시·군이 힘을 합쳐 농·어 민 공익수당을 도입키로 하면서 업무협 약, 조레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.

전남도 관계자는 "농•어민 공익수당 도 입에 대한 22개 시•군의 합의가 이뤄진 만 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과 지급 액수, 지급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 /김지을 기자 dok2000@

### 한반도 비핵화・평화프로세스 새단계 도약 기대감

문 대통령 '새 평화시대' 언급 남북관계・북미대화 선순환 강조 개성공단 긍정 효과 美에 설명

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 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2일 청와대 국 무회의 모두발언에서 '새로운 평화시 대'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 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 건이 마련됐다는 인식이 담겨있다는 평

특히, 문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 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 다는 판단 아래,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

이를 반영하듯,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

에서 "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 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" 고 밝혔다. 북미 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담판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.

또, 문 대통령이 "(당시) 트럼프 대통 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 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"고 설명한 부분도 주목된다.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개성공 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북한 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

문 대통령은 지난 3·1절 100주년 기념 사에서 "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미국과 협의하겠다"고 밝힌 바 있 다. 당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 후였던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

으나, 이제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공하 고 북미 대화가 제 궤도에 진입한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는 분석도 청와대 내부 에서 흘러나온다.

이와 함께,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'경협 지렛대'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 도 관심이 쏠린다. 문 대통령은 지난 2 월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"철도·도로 연결 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 가 돼 있다"라고 말하면서 대북제재 완 화를 촉구한 바 있다.

이런 '경협 지렛대' 구상은 트럼프 대 통령의 운신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, '경 제건설 총력 집중'을 새로운 노선으로 택 한 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.

/임동욱 기자 tuim@kwangju.co.kr





한/중/일/러 특별 전세선 8일

내 측 1,980,000원 ~ 발코니 2,680,000원 ~



인천함



한/러/일 특별 전세선 6일 내 측 1,780,000원 ~ 발코니 2,480,000원 ~





(42)



단체 예약 최대 10만원 추가할인 성인 80만원 / 소아 무료!

■ 포함내역: 크루즈 객실 및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, 선내 뷔페 및 레스토랑 정찬식, 선내 이벤트 및 부대사설 이용, 다양한 쇼프로그램관람(일부 유료사설 및 쇼제외), 미 링/생딩 포함, 크루즈 전문인술자 동행, 선박TAX, 해외여행자보험 도브 지주해 (구리스 /그리스/그라스/이타리) ▶ 6/21~ 매주 금 출발 ■ 불포함내역: 선내 승조원경비(성인 \$72.5~ \$101.5 / 소아 \$37 ~\$52), 기항지 선택관광(선택관광지에 따라 상이 / 홈페이지 참조), 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\$10

▶7/3,8,12,26~ 매주 월,수,금요일 출발

●새롭게 단장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탑승 ●부산 출/도착 

3,700,800원부터 + US201.5 선택관광 있음 6/7, 14 이후 매월확정, 매주 금요일 출발

#### ●루비 프린세스호 ●프리미엄 크루즈 승선 및 알래스카산 선상식 조기예약최대 3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🥌 10/11일

2,990,000원부터 [+170/180유로 선택관광 있음] ❷

동부 지중해 (그리스/크로아티아/이태리) ▶6/28~ 매주 금 출발 ●유럽 NO.1 코스타 크루즈 탑승, 밀라노 추가 관광 + 일급호텔 숙박

가격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구세,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/기사경비 [1 전경보단계] ●여행유의 / ● 여행유의 / ●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만 가능합니다. ●조로구청: 일반여행업 제467회(서울시 종로구 제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(주)) ●일반여행업 영업보충보험 10억원 가입 ●여행출발지: 부산항/속초항 ●최소출발 10명 ●크루즈 2인 1실 사용(일부객실 제외) ●교통편: 황공, 버스, 크루즈(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) ※항공기, 열치표, 입장권,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